2014 지방직 국어A형-지안공무원학원 국어강사 오경미

1. 밑줄 친 '마'의 뜻이 다른 하나는?
①마이동풍
②주마간산
③천고마비
④절차탁마
[답]④
[정답인 이유] 절차탁마(切磋琢磨): 끊을절, 갈차, 다듬을탁, 갈마, 뜻: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오답인 이유]
①마이동풍(馬耳東風): 말마, 귀이, 동녘동, 바람풍, 뜻: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비평(批評)이나 의견(意見)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
②주마간산(走馬看山): 달릴주, 말마, 볼간, 뫼산, 뜻: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仔細)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이름
③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천, 높을고, 말마, 살찔비 뜻: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썩 좋은 절기(節氣)임을 일컫는 말.

2.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①리포트, 서비스, 워크숍, 콤플렉스
②색소폰, 쥬스, 텔레비전, 판타지
③심포지엄, 로케트, 앙케트, 타월
④난센스, 리더십, 싸인, 파일
[답]①
[정답인 이유] 리포트(○)/레포트(X), 서비스(○)/서어비스(X), 써비스(X), 써어비스(X)/ 워크숍(○), 워크샵(X), 워크샾(X), 웍샵(X), 웍샾(X), 웍숍(X), 웍숖(X)/ 콤플렉스(○), 컴플렉스(X)
[오답인 이유]
②색소폰(○), 쥬스(X→바른표기: 주스), 텔레비전(○), 판타지(○)
③심포지엄(○), 로케트(X→바른표기: 로켓), 앙케트(○), 타월(○)
④난센스(○), 리더십(○), 싸인(X→바른표기: 사인), 파일(○)

3.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①욕이 입에 배어 큰일이다.
②그는 속이 너무 배어 큰 인물은 못 된다.
③갓난아이 몸에는 항상 젖내가 배어 있다.
④이 책에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
[답]④
[정답인 이유]

보기: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 있다.
여기에서의 '배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으로는 '④이 책에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이다.
[오답인 이유]
①욕이 입에 배어 큰일이다. :'배다'의 의미로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②그는 속이 너무 배어 큰 인물은 못 된다. :'배다'의 의미로 '생각이나 안목이 매우 좁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③갓난아이 몸에는 항상 젖내가 배어 있다. :'배다'의 의미로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이다.

4.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모두 고른 것은?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 되었다.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나를 보기 위해 왔니?

①만남, 한, 뿐
②한, 뿐
③한, 뿐, 보기
④만남, 보기
[답]②
[정답인 이유]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청소하여라.: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그녀는 웃을 뿐 말이 없었다.: '뿐'은 의존명사로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인 이유]
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갈등이 다소 해결 되었다. : '-으로써'는 조사이다. 조사 앞에는 명사형의 형태가 쓰여야 하기 때문에 '만나다'라는 동사에 '-ㅁ'이라는 명사 구실을 하는 어미를 썼다.
나를 보기 위해 왔니?: '나를 보다'라는 '보다'의 서술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라는 어미를 사용해서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했다.

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퀸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극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 예술 이외의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예술’과 ‘기술’의 차이
②‘예술’의 변천과 그 원인
③‘예술’의 속성과 종류
④‘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답]④
[정답인 이유]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퀸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미적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조형 예술에 극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형 예술 이외의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한 미적 가치의 실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본다면 ‘~비롯되었다’의 반복과 ‘~포괄하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다’, ‘~이해된다’라는 의미를 통해 그 어원의 의미 변화라고 알 수 있다.

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②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③훔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④단팥죽이라도 가져와야지.
[답]①
[정답인 이유]
형태소의 개수를 셀 때는 항상 기본형으로 변환 작업을 먼저 거쳐야 한다.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남기어진 적도 물리치었겠네)
: 남+기+어+지+ㄴ+적+도+물리+치(무르+이+치)+었+겠+네(12)
[오답인 이유]
②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너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었어)
: 너+를+위+하+아서+땀+을+흐르+리+었+어(11)
③훔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훔치어 가았을 수도 있겠군요)
: 훔치+어+가+았+을+수+도+있+겠+군+요(11)

④단팥죽이라도 가져와야지. (단팥죽이라도 가지어오아야지)
: 달+ㄴ+팥+죽+이라도+가지+어+오+아야지(9)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라)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① 가-다-나-라
② 가-다-라-나
③ 다-라-가-나
④ 다-라-나-가

[답]②

[정답인 이유]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라)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밑줄 친 부분은 각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밑줄 그어 놓은 것이다. (가)에서 '자신의 상품'이 '화폐와 관계'를 갖게 되며 '자립적인 삶'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가)의 마지막 밑줄이 '자립적인 삶'이기 때문에 (다)에서 그 내용을 바로 받는다. '독자적인 인격체'로 받는 것이다. (라)에서는 '독자적인 인격체'는 '교환'이 되며 교환은 '시장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나)에서 이러한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이 '소외'된다고 하고 있다.

8.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조금 귀찮더라도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 중에는 앞으로 오백 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평소에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①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답]②
[정답인 이유]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 뒤,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천 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백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
>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과 또한 요구된다.

①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②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③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④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답]①
[정답인 이유]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번)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천 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백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4번).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3번)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과 또한 요구된다.

1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흩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이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낑낑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걷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①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라.
②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③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④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답]③
[정답인 이유]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흩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이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낑낑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걷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①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②볶은 콩에 싹이 날까?
③빛 좋은 개살구
④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답]③
[정답인 이유]
보기: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보기와는 달리 맛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볶은 콩에 싹이 날까?: 불에다 볶은 콩은 싹이 날 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주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

12.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①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②냠냠, 네모, 넘기다, 늴리리
③얇다, 앳되다, 여름, 에누리
④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답]④
[정답인 이유]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ㅏ ㅐ ㅑ ㅓ ㅖ ㅕ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오답인 이유]
①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 두다, 뒤뜰, 뒤켠, 따뜻하다
②냠냠, 네모, 넘기다, 늴리리 : 냠냠, 넘기다, 네모, 늴리리
③얇다, 앳되다, 여름, 에누리 : 앳되다, 얇다, 에누리, 여름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②사람들의 후원금이 방송국에 답지하고 있다.
③빙산이 바다 위를 보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④세입자에게 밀린 집세를 너무 자주 채근하지 마라.
[답]③
[정답인 이유] 부상: '물 위로 떠오름, 어떤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훨씬 좋은 위치로 올라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개발하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②답지하다: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오다
④채근하다: 남에게 받을 것을 달라고 독촉하다.

1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르다."라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강개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
>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
>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①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②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③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④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②
[정답인 이유]

>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르다."라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강개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
>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밑줄 친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지만 여기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괄호에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야기가 와야 한다.

1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어제 선생님을 뵀습니다.
②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③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데요.
④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답]②
[정답인 이유]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치어져요)
[오답인 이유]
①어제 선생님을 뵀습니다.(뵈었습니다, 뵵습니다)
③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데요.(예뻐졌대요)
④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쌍둥이이에요, 쌍둥이예요)

16.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장 가까운 것은?

흥망이 유수ᄒᆞ니 만월대도 추초ㅣ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ᄂᆞᆫ 객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①서리지탄(黍離之歎)
②만시지탄(晩時之歎)
③망양지탄(亡羊之歎)
④비육지탄(髀肉之嘆)
[답]①
[정답인 이유]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ㅣ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ᄂᆞᆫ 객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흥하고 망함이 하늘에 달렸으니 만월대도 가을 풀만 우거져 있다. 오백 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해제: 이 시조는 폐허가 된 고려 왕궁의 옛터에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전형적이 회고가의 하나이다. 아름답던 만월대에 풀만 무성한 모습은 목동의 피리 소리와 함께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더하게 한다. '석양'은 망해 버린 고려 왕조를 상징하는 동시에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출전: 『진본 청구영언』
▷주제: 고려왕조의 회고, 고려의 멸망에 대한 슬픔

①서리지탄(黍離之歎):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 터에는 기장만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며 이르는 말.
[오답인 이유]
②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③망양지탄(亡羊之歎):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비육지탄(髀肉之嘆):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17. ㉠~㉣을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 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쫓게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①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③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④ ㉣: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체 '조심하세요'를 사용한다.
[답]④
[정답인 이유] '조심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모두 사용가능하다.
[오답인 이유]
① ㉠: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으로 바꾸어 필요한 성분을 모두 갖춘다. :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은 '먹다'라는 서술어가 '운동'과 '도시락'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② ㉡: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으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한다. :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에서 주어는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말'의 높임어인 '말씀'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한다. :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일입니다.'로 바꾼다.

1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① ㉠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 ㉡에 제시된 두 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은 앞 문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긴밀성을 해친다.
④ ㉣은 전체 제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해친다.
[답]④
[정답인 이유] 통일성이란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 내용은 글 전체의 흐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
[오답인 이유]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관용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글의 흐름상 봤을 때 긴밀성에 비추어 옳은 문장이다.

1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②불볕더위[불볃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③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온맵씨]가 난다.
④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굥뉴]도 좀 사 오너라.
[답]②
[정답인 이유] 불볕더위: [불볃떠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ㄷ'으로 소리가 난뒤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뒤의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ㄸ'으로 소리가 난다.

20.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

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세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중국 황제의 절대 권위, 이것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며,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된 여러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권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시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왕들은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훨씬 더 (㉡)이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황토로 이루어진 광대한 평원 위에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하여 왕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큰 것이 선천적으로 잘나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작은 것이 못나서도 아닌 것이다.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① ㉠강조(强調) ㉡위압적(威壓的) ㉢전망(展望)
② ㉠향유(享有) ㉡정략적(政略的) ㉢능력(能力)
③ ㉠구축(構築) ㉡타협적(妥協的) ㉢필요(必要)
④ ㉠행사(行使) ㉡당파적(黨派的) ㉢권고(勸告)

[답]③

[정답인 이유]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세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중국 황제의 절대 권위, 이것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며,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된 여러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권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시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왕들은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훨씬 더 (㉡)이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황토로 이루어진 광대한 평원 위에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하여 왕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큰 것이 선천적으로 잘나서도 아니

며, 그렇다고 작은 것이 못나서도 아닌 것이다.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권위가 필요했지만 ㉠ 뒤에 있는 서술어 '없었다'라는 단어를 통해 '구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구축'이란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러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타협'이라는 것이 ㉡에 들어가야 하며 ㉢ 뒤의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필요'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알 수 있다.